

民族史의 先白

6. 25 ~ 6. 26 행간의 역사의

序

신명기 26, 5-9] 開

○월 4부 수록

20세紀의 기억 속에 가장 큰것은 해리면  
역시 이스라엘 國의 再顯이라고 할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上帝 神 아래 조종을  
받았을 때를 빼고 그걸 마지막 한천히 ~~마땅~~  
되어 國家 행정의 三大 宗廟 리수 國土  
主权 그리고 立法 中에서 두가지를 갖는다.  
이러 버리고 2세기 永遠을 ~~갖고~~ 1200년  
만 끝이 되는者 ~~되는~~ + 깊은것이  
주 70년 ~~연~~ ~~연~~ 第二次 大戰 후 이스라엘  
国家를 세웠다 2000년 백을 ~~나온~~ 古本  
기록이 된것 같은 기억이 아닐수 없다.  
무엇이 저들에게 그때까지 이어졌을까?  
우리는 단순히 信上帝이라고 하든 모범당한  
을 찾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

구약은 이스라엘 立法 而 그들의 徒(부)  
이 ~~되~~ 된자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에서 께속적으로 復得하는 王이  
가 있다. 그것은 바로 立法 而 先白이다

2 그 날에 대한 글을 기록되어 어느덧 이  
가장 낡은 것인가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신영기 26. 5 월 1일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아래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

"여기 선조는 데돌면 사는 아람인이 였음  
니다. 그는 열마암드는 사람을 거느리고  
에집트를 나와서 가서 자기에 물불에 살았  
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부려나 죽고  
강대한 린제이 되었는데, 그래서 에집트  
인들은 우리를 악수르고 과를 했을때다. 우리  
事情 없이 부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농장을 드리  
하나님 야훼에 부르지 않았더니 야훼께서는  
우리의 악수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악수를 라는  
하나님 속에 당하는것을 깨닫고 살피셨을때  
그리고 야훼께서는 역전 손으로 차지하고  
단을 11번으시어 온갖 도적과 기록을 행하  
심으로써 모두 두려워 멸제 하시고는 기기  
로 에집트에서 주를 해 대쳤을때.  
그리하여 우리는 이곳으로 데려 오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땅을 주셨을때,

3).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그을 구원받았던  
날로 일어주어 암울한 막을 헤쳐나온  
날이었으므로 이에 힘입어 떠나 당시에는 대체  
으로 구제의 도움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감사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여러 형편으로  
는 ~~한국~~ <sup>등으로 전승하였음</sup> 백성을 허락하신  
3) 그간 드리운 시간과 축복의 정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있기까지의 여정을, 즉 그들이 단 뿐만  
그들은 이 모든 고난과 희생을 허락하신 풍恩을 제작한  
행했다.

이런 기본적 봉사의 어떤 때 누구에게 전  
송했는지를 뚜렷하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sup>제작한</sup> 때를 다룰 수 없고 단지 멀기지 ~~제작한~~ 소지  
한번

이경기 6.20-24 이는 5-6개월이 허락  
“받은 훈령과 규정과 협정이 원칙이며  
고를 거든.”

여호수아 24. 2-13 이전에 훈령과 규정

“장노. 아론. 범관. 문수원 등으로 이는  
우 <sup>의</sup> 훈령에 대각하고 체한 일로 있겠지.”

4. 이 글은 대체로 다시 찾고 읽으려고 했던

거기는 현실 세계으로 차서 하루 퇴근.

178. 105. 106. 136

그리고 시민이 베일이면 그때를 때

78년 그 중 둘은 遺失(失)을 빼온 해였고

136년 구원의 날을 맞은 쌍중화는 長安(長安)

“178년은 그의 구원의 날은 새기하면 좋지

하나 그것을 놓았는데 즉 첫 바라는 이였다

처음가)

↓

여자(三)

착총(射)

시사작

(後漢)

그가 하여는 데

“내 죄례에, 나의 가드침은 둘이라

내가 하는 말이 키울 기운이라

내가 역사의 교훈은 뿐이라

그 숨은 뜻은 밝히 주라 ...”

178

예로부터

그런데 136년에서 이는 그것과는 뜻이다

기독교 信義의 내용으로 교수하고 할아직

나 첫 쟁행역으로 했다

여전히

178

한국(韓國)

2000년

모든(萬物)

창세기

즉장

애기

우리

총애금

을

신의

보

기회

희

이치

별

여자신분 악 죄께 감사드리 불러라

그가 사랑 영원하도다

이집트인들의 빛나는 치광도다

그가 사랑 영원하도다

우리 힘으로 혼수를 헌기의 빛나는 치광도다

그가 사랑 영원하도다

이상의 같이 그百姓의 행정에 따라 약간의  
바리에 손이 있는데 基本의 道路와 河谷  
를 대개 하게 만들어서 대로로 전하고  
그들은 그 道로에 주제에 道路의 배를 찾고  
그 道로에 信仰의 기반을 짓아 왔다

xx

이상의 이스라엘의 道路와 농성을 보아서  
重複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 그들은 基本의 道路와 농성을 보아서  
지역을 나누어 주거나 그 지역 안에  
이어지거나 道로와 농성이 높고 낮다는  
사실이라 대해서 그들의 경계는 道로와 농성  
이다. 그들은 道로와 농성의 경계를 정하는  
하는 경계이다.

② 그들의 道로와 농성의 경계는 Exodus  
15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란 두 가지 구역에 걸친 경계를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③ 이들의 道로 행정의 특징은 그들이  
그들이 있다. 예장으로서 일子里로  
그들을 담하고 축복을 달한다.

• 흘 애국기 기는 모세mm

「나는 대 배성이 이끌고 이어 고생 하온 것을  
똑똑히 보았고 역사의 밟으며 과로와  
물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기록은 많았다.  
이들은 광야 40년이 고생한 끝에 그 끝에  
정성에 닦은 한 과정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박침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한국들은 모두 "그들의 친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손과 함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④ ~~한국의 역사가 그들을 이끌고 있다.~~  
x x

※ 아래 우기는 591번의 3.1 운동을 비자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것은~~  
~~다른 그들은 그들이 역사의 흐름에~~  
~~그것이 다른 우리와 차이를 제 정비하는~~  
~~일입니다.~~

#### Ⓐ 3.1 운동

① 우리가 우리가 흘렸던 혈액을 한마디  
어떻게 하기? 이것은 우리가 고생 이끌고  
그리고 3.1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들은~~ ~~한국인~~ ~~하스바~~는 잘히 생각하는 데로

7. 7월 10일

우리는 ~~支那의 依~~ <sup>한국</sup> 고리 악을 봄에서 철기  
을 찾았는데는 않는데

순전히 충족부 ~~民~~ <sup>人</sup> ~~被~~ <sup>被</sup> 樂者 19,525명

17.7%인 2,190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高麗~~ 고인수로 보아 약 53,000명  
가 ~~高麗~~ 韓에 찾은 것은 5세기이다. 天主教의 優良  
자 주석은 11. 17%뿐. 佛敎 俗風. 73 1.1  
1.8% 뿐이다.

그런데 하경현 전지에서 찾은 이 31. 4%은

서당이나 단어 ~~漢字~~ <sup>漢字</sup> 이수자 19,204

半數 ~~高麗~~ <sup>高麗</sup> 한 ~~支那~~ <sup>支那</sup> 이고 나니  
그리스도교도 大部分 ~~高麗~~ <sup>高麗</sup> 이었으리라

3. 1운동은 33人이 찾았기 아니면 33명은  
의 ~~高麗~~ <sup>高麗</sup> 전역에 걸친 이해의 힘으로 아니면  
그것이 ~~高麗~~ <sup>高麗</sup> 전역에 걸친 종교봉기다.

이 高麗! 高麗 舊國의 지도를 채워 절망해

~~高麗~~ 高麗에서 온 죄 ~~高麗~~ <sup>高麗</sup> 열망하는 이

高麗! 그리하여 外國人 ~~高麗~~ <sup>高麗</sup> 師들을 쳐败하고  
다운 치적 반을 드는 그들!

그런데 그들을 절대로 지나칠 수 없을 각의  
는 아니였고 ~~高麗~~ <sup>高麗</sup> 邪과는 이전에 <sup>이전에</sup>  
온 맞선 独自의 이론을 걸었더니 사실  
은 空虚하리.

## 8. Clark의 한국선교사

" 1910년에 선교사들은 교회와 정치 문제에서 관례로 떨는 것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 그 다음에 한 친척이 그리스도교인들이 관례에 차지 "종교를 험생다"고 했다.

선교사들이 종교 종교에서 보면 이 것과 그것과는 "기독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정된 것을 주는 것은 선교사로서 선교상, 대체 한 이하, 관례가 있다." 우리 교회 역원 및 교사에서 頑固派이 복종하는 기도하고 교회는 정치 운동에 있어 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1901년 장로회 습관 속의 관례

"교회는 성신의 부친교회은 나라의 보국을 교회 아전대에 예비당이나 희망사관이나 교회 희망대교회 일을 하거나 죄를 짓아오, 나라의 악을 하는 자는 아님. -- 누구든지 교인이 되어서 다른에서 공훈 봉하지 못할 나라 일을 教會의 사랑에서 더욱 못 한 것으로, 하는 것이 있음을 본다. — 모든 그리스도徒는 이로 진리를 알게 된 것을 고지하고 聖經을 전하고 이로 소회를 절대 고수한 것을 바란다. 이러한 때는 축복하다. 教會를 전하고 大印과 교회 관례는 8월 15일이나 이후 경에 15일 전설에 늘어 기록으로 회문하였다.